



즉시 배포용: 2019년 10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포스(HATE CRIMES TASK FORCE)에
웨스트체스터카운티 고등학교의 만자를 수사할 것을 지시**

"저는 지난 목요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플레전트빌 고등학교(Pleasantville High School) 화장실 벽에서 발견된 만자 그림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유대적 사악한 행위가 특히나 충격적인 것은 만자가 그려진 곳이 뉴욕의 미래 지도자들의 배움의 장이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포스(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가 이러한 추악한 행위에 대한 해당 지역 당국의 수사에 지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 반유대주의 대항 동맹(Anti-Defamation League)과 홀로코스트 인권 교육 센터(Holocaust and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와 함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편견과 인종 차별에 관련한 교육 조치를 취한 플레전트빌 교육구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은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에 맞서 유대인 공동체와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